

2016 올해의 공공도서관에 덴마크 Dokk1 선정

<http://www.ifla.org/node/10558>

<http://modelprogrammer.slks.dk/en/news-events/public-library-of-the-year-2016/>

<https://dokk1.dk/press-requests>

<http://english.slks.dk/english/news/dokk1-named-worlds-best-public-library/>

덴마크의 항구도시 오르후스(Aarhus)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Dokk1이 '2016 올해의 공공도서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상은 덴마크 문화·고궁청(Danish Agency for Culture and Palaces)과 공공디자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영리단체 레알다니아(Realdania)가 공공도서관 모델을 발굴하고 축적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2014년 1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 개관한 공공도서관이 지원 대상이었으며, 미국과 호주의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총 4곳이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인 끝에 Dokk1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Dokk1은 입지와 설계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공공도서관으로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 이 도서관은 항만의 버려진 땅에 지어졌는데,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을 찾게 되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접근성을 높인 설계도 눈길을 끈다. 도서관의 입면을 보면 '뒷면'이 없고 사방 모두 '정면'과 같은 모습으로 설계되어 있다. 도서관 건물로 이어지는 계단과 많은 야외공간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도서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휴식을 취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질이 높지만 과시적이지 않은 소재를 활용해 심플한 형태로 건물을 구현한 것에 대해 "모두를 위해 열린 공간이자 다양성의 공간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콘셉트를 훌륭히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내 공간 역시 이러한 콘셉트 아래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이즈로 설계되었으며 유연한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고려한 요소들이 다수 반영되면서 단순히 도서관 공간이라기보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일례로 도서관 이용자들은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도서관에 설치된 스크린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도시에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울리는 벨을 설치하는 등 기발한 아이디어로 지역 커뮤니티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dokk1의 내외부 전경

자료: Dokk1, *Space for Change*, 2015, (<https://dokk1.dk/book-about-dokk1>)

유네스코, 르 코르뷔지에의 17개 건축물 세계유산 등록

<http://whc.unesco.org/en/news/1528/>

<http://whc.unesco.org/en/list/1321>

유네스코가 지난 7월 1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40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건축물 17개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고 발표하였다.

17개의 건축물은 아르헨티나·벨기에·프랑스·독일·인도·일본·스위스 7개국에 위치하고 있으며, 르 코르뷔지에가 'patient research'라 명명한 반세기 기간에 걸쳐 지어진 것들이다. 도쿄의 국립서양미술관(National Museum Of Western Art), 마르세유의 유니테 다비타시옹(Unité d'habitation in Marseille) 등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르 코르뷔지에의 대표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유네스코는 이번에 등재된 일련의 건축물이 모더니즘 건축의 상징과도 같으며, 그 안에 담겨 있는 혁신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르 코르뷔지에가 과거와 다른 건축 양식과 기술을 통해 사회가 원하는 건축을 실현하였으며, 모더니즘 건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점이 이번 등재에 큰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상 프랑스 통상교회
하 인도 찬디가르의 국회의사당



독일 슈투트가르트
바이센호프(Weissenhof)에 지어진 주택

미국 주택도시개발부, 뛰어난 어포더블 하우징, 커뮤니티 디자인 프로젝트 선정

http://portal.hud.gov/hudportal/HUD?src=/press/press_releases_media_advisories/2016/HUDNo_16-107

<http://www.aia.org/practicing/awards/2016/hud-awards/>



©Bruce Damonte



©Mark Ballou

상
하
Lakeside Senior Apartments 전경
DA+HC 프로젝트를 통해 지어진
공동주택과 아트센터

자료: AIA 홈페이지(<http://www.aia.org/practicing/awards/2016/hud-awards/>)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가 미국건축가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ure: AIA)와 함께 훌륭한 어포더블 하우징 디자인과 커뮤니티 디자인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노인들을 위한 저렴한주택, Lakeside Senior Apartments | 오클랜드 메리트 호수 주변에 위치한 이 아파트형 공동주택에는 91명의 최저소득층 노인들과 노숙자 노인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집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존의 거처에서 내몰린 사람들이다.

아파트는 잘 쓰이지 않는 지역 주차장 부지에 지어졌으며,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접근이 편한 위치에 조성되어 노인들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밀도 높은 설계를 지향하면서도 중간 정도 규모와 높이의 건물 두 개로 나누어 지어, 지역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 가장자리 공간에 설치된 정원·발코니·현관은 건물과 길, 주변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내에는 공동 주방과 TV라운지를 갖추고 있는 커뮤니티 룸, 미술 프로그램과 정기적인 주민모임을 하는 활동공간 등 다양한 공동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두 건물 사이에 위치한 안마당은 이러한 공동 공간과 면해 있으면서, 유연한 실내·실외 공간을 만들어낸다. 5층에는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과 옥상 정원, 데크, 운동을 위한 연습실도 마련되어 있다.

빈곤 지역 환경 개선과 커뮤니티 재생 프로젝트, DA+HC | 그레이터 그랑 크로싱(Greater Grand Crossing) 지역은 시카고에서 범죄율과 빈곤율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Dorchester Art + Housing Collaborative(DA+HC) 프로젝트는 주거환경 개선과 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재생으로 지역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고자 시작되었다.

이 지역에는 1980년대 조성된 공영 연립주택들이 빈 채로 남아 있었는데, 이를 수리하여 주민들이 살 수 있는 32채의 공동주택을 제공하였다. 외관이 깔끔하게 보수된 것은 물론이고 실내에는 에너지 효율적인 창과 조명, 가정용 기기 등이 설치되었다. 기존 건물의 재료가 최대한 재활용되었고, 녹화지붕(green roof)과 빗물 정원(rain garden)이 설치되었으며 투과성 포장재가 활용되었다.

공동주택의 일부는 예술가들의 레지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 위원회가 직접 예술가들의 포트폴리오를 검토해 상주할 예술가를 선정하게 되며, 레지던시에 사는 동안 예술가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예술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해야 한다.



©Dale Lang



©Dale Lang

상
하
Port Townsend Residence 전경
휠체어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Port Townsend Residence의 부엌
자료: AIA 홈페이지(<http://www.aia.org/practicing/awards/2016/hud-awards/>)

재해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프로젝트, DR2 | Disaster Recovery Round2(DR2)는 2008년 허리케인 아이크(Ike)로 인해 큰 피해를 본 텍사스 휴스턴의 6개 지역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DR2는 허리케인을 직접 경험한 시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통찰력, 건축가들의 전문성을 융합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건축가들은 먼저 6개 지역에 대한 특성과 지역적 맥락에 대해 조사한 뒤 최소 300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후 조금 더 소규모의 커뮤니티 워크숍을 열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디자인, 주민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을 파악하고 설정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 이후에는 지역마다 15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포커스그룹과 건축가가 함께 주민들의 생활 패턴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디자인을 논의하게 된다.

완성된 디자인은 두 개의 갤러리에서 전시되어 모든 지역의 참가자들이 모여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나누게 되며, 디자인에 대한 투표도 진행된다.

접근성을 높인 주택 디자인, Port Townsend Residence | 워싱턴 포트타운센드에 자리 잡은 이 주택은 전동 휠체어를 타는 부부를 위해 건축되었다. 휠체어를 타고 주택 실내와 발코니, 정원, 거리로 나가는 경로 등을 원활히 다닐 수 있는 설계가 주된 콘셉트이다. 집 건물에 붙어 있는 차고를 통해서도 부부의 이동수단인 경사로 달린 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내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음에도 개방형의 평면 계획으로 공간감과 이동성을 확보하였고, 집 곳곳에 설치된 포켓 도어에는 커다란 손잡이를 달아 손을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는 건축주가 쉽게 문을 여닫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부엌과 욕실 공간에도 많은 요소들이 반영되었다. 부엌 싱크대 아래에는 무릎과 휠체어 바닥이 들어갈 수 있도록 비어 있는 공간(knee space)을 제공해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하기 쉽게 설계하였다. 벽에 설치된 간이 수전인 팻 필러(pot filler)는 원하는 위치로 움직여 사용할 수 있어, 무거운 냄비를 이곳저곳으로 옮길 필요가 없다.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었고, 문턱이 없도록 설계되었다. 휠체어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두 종류의 샤워헤드와 밸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시드니, 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CBD 고층화 전략

<http://www.sydneymedia.com.au/skyline-vision-to-boost-economy-and-emplo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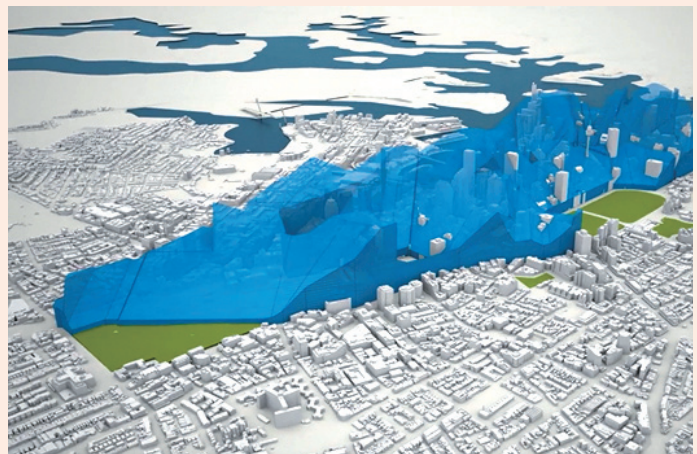
<http://www.smh.com.au/nsw/cbd-boom-time-city-of-sydney-says-the-only-way-is-up-20160713-gq4vvhb.html>

시드니 시가 시에 적용되고 있는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고층 건축 개발을 진행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앞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시드니 시의회는 도심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에 대한 새로운 도시개발계획 'Central Sydney Planning Strategy'의 초안을 발표하고, 다수의 고층 빌딩 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새로 개발되는 '타워단지(tower cluster)'는 300m가 넘는 건물들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시드니 도심에 적용되던 235m 높이제한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이 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는 CBD 지역에 상업·오피스 빌딩, 문화공간 등의 조성을 위한 2,900만㎡의 공간을 새로 확보하는 것으로, 시드니 도심 경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동력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시드니의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은 "이전 도시계획 전략은 시드니 도심 지역에 주거 공간을 확충하는 데 성공적이었으나,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생산적인 공간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 역설하였다. 또한 새로운 계획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지구이자 뉴사우스웨일스 주 전체의 경제 엔진인 시드니 CBD 지역에 지나치게 활성화된 주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CBD 지역에 들어서는 55층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 내부 면적의 절반을 사무용 공간, 소매점, 문화 또는 기타 용도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CBD 지역 내에 주거지를 개발하는 회사에 대해서 일정량의 저렴한 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새로운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집값 상승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도시개발계획으로 형성될 시드니 도심의 스카이라인

자료: 시드니 시정부 홈페이지(<http://www.sydneymedia.com.au>)

토론토, 대규모 도시 공원 조성 계획 발표

<http://www1.toronto.ca/wps/portal/contentonly?vgnextoid=af71df79b2df6410VgnVCM10000071d60f89RCRD&nrkey=B742AF8E544274AE85258004005D75BF>

<http://www1.toronto.ca/wps/portal/contentonly?vgnextoid=ec9dbfdca1156510VgnVCM10000071d60f89RCRD&vgnextchannel=84a7e03bb8d1e310VgnVCM10000071d60f89RC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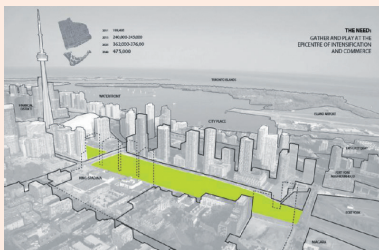
토론토 시가 지난 8월 21 에이커(약 8만 5,000m²) 크기의 대규모 도시 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Rail Deck Park'라고 명명된 이 공원은 베더스트 스트리트(Bathurst Street)와 블루 제이스 웨이(Blau Jays Way) 사이의 기차선로 상부에 조성될 예정이다.

공원 계획을 직접 발표한 존 토리(John Tory) 토론토 시장은 “훌륭한 도시에는 그만큼 좋은 도시 공원이 있다”면서 “시민들을 위한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후대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계획의 의의를 밝혔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토론토 도심의 인구가 2041년이 되면 현재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녹지 비율은 도시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의원 조 크레시(Joe Cressy)도 “더욱 많은 가족들이 도심 속에 등지를 틀 것이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친구들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라며 “도시의 유휴공간을 지속가능한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시민과 도시 모두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계획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실행을 위해 우선 시는 선로 상부를 이용할 수 있는 공중권을 확보하고, 공공의 사용 목적으로만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정계획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는 장기적으로 이 공원이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살게 될 토론토 도심에 큰 규모의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원이 조성될 예정인 기차선로 구간은 킹 스파디나(King-Spadina)와 시티 플레이스(City Place), 워터 프론트(Waterfront) 간 연결을 막는 물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원이 완성되면 이 지역과 커뮤니티 사이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토 시의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 간 원활한 이동과 소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Rail Deck Park 계획안

자료: 토론토 시청 홈페이지(<http://www1.toronto.ca/>)



공원 조성 전



공원 조성 후

리우데자네이루의 올림픽 이후 경기장 활용 계획

<https://www.rio2016.com/en/paralympics/venues>

<http://www.citylab.com/design/2016/08/rios-plan-to-transform-its-arenas-after-the-olympics-nomadic-architecture-temporary/494963/>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을 위해 지어진 경기장이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리우데자네이루 시는 올림픽 핸드볼과 패럴림픽 골볼 경기장인 '퓨처 아레나(Future Arena)'와 수영 경기장 '아쿠아틱 스타디움(Aquatic Stadium)'을 해체해 그 자재를 각각 시민들을 위한 학교와 수영 시설을 짓는 데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에두아르도 파에스(Eduardo Paes) 시장은 이러한 콘셉트를 '방랑하는 건축(nomadic architecture)'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퓨처 아레나는 각각 5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공립학교로 다시 지어질 예정이다. 경기장은 지붕, 파사드의 패널, 기둥 등 건축물의 부분 부분이 볼트로 연결되어 있다. 올림픽이 끝나면 이들을 다시 해체하고 분리해 학교가 세워질 세 지역으로 나눠 보내게 된다. 배관과 배선도 설계된 것을 해체하여 그대로 네 개의 학교에 다시 설치할 수 있다.

경기장의 건축을 맡았던 영국의 건축사사무소 AndArchitect는 처음부터 재활용을 목적으로 경기장을 설계하였으며, 마치 레고 블록처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였다고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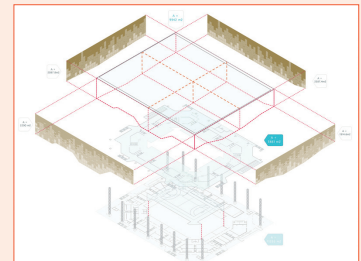
아쿠아틱 스타디움도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수영장 두 개로 재조립될 예정이다. 9개의 경기장이 모여 있는 300에이커 규모의 바라 올림픽 파크(Barra Olympic Park)는 공공을 위한 공원과 민간 개발에 활용된다. 국제 방송센터도 한 고등학교의 기숙사로 재활용한다는 계획이다.



©AndArchitect

퓨처 아레나

자료: www.citylab.com



©AndArchitect



©AECOM

상 퓨처 아레나 활용 계획
하 바라 올림픽 파크의 향후 활용 계획안